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지금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능치 못함 없음을, 지금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능치 못함 없음을, 지금 믿습니다.

자 선 채로, 머리를 숙입시다.

주님, 이것이 노래에 그치지 않고, “지금 전 믿습니다!”하고 노래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권능있는 역사들을 많이 행하신 후에, 언젠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제 우리들은 믿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하셨습니다.

2 그들은,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밤 당신이 우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필요로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든,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3 저는 오늘밤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서서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저는 들어올 수 없었다는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 차 안에 들어가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밤, 일요일 저녁인데, 되도록 일찍 끝내도록 노력하겠고, 우리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 위에 한 줄을 세울 수 있다면 기도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밤 이 예배를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예배로 봉헌하겠습니다.

4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들림받는, 휴거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설교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표적과 기사들 모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옛날 엘리사처럼,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의 중심이시라면, 저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그분께 꼭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중심이시고 북극성이시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ய요. 그런데 그가 북극성이시라면... 북극성을 가리킬 것은 단 한가지 뿐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향해할 때 가지고 다니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향해하면서 가지고 가게 하려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언제나 그분을 가리킵니다. (Eng. p. 2)

6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커다란 곤란과 시험의 때를, 시대의 당혹감과 국가간의 알력과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때로 저는 마치... 삼키우는 것처럼. 어디를 보나,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 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무사히 마칠까요? 그런데 여기에 제 배 보다 백 배나더 큰 흰 모자를 쓴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타고 항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장, 대선장님께서 배 끝에서 줄을 잡고 계시고, 그것을 계속 잡아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파도를 이길 것입니다.

7 자, 오늘밤, 우리는 서둘러 여러분을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운전을 하고 이곳에 와 주심

과 기타 여러가지에 대해서, 운전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서서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려고 무척 애섭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순간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만약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택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꾸준히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명심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8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오늘밤 낮게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어떤 의문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저는--저는 제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것을 믿고 있음을 압니다.

9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될 때 저는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하고 말합니다. 오, 그들에게 보내온 떡을 먹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환상임을 깨달으셨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네빌형제님, 그 환상을 기억하시죠, 핑, 굉장한 때입니다!

10 자 다같이 책을 펴서, 여러분이 함께 읽거나 그것을 표시해 두고 싶으시다면, 그저...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몇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갖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이 병고침 예배든 다른 어떤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처음 오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병고침이 뭔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도 같은 맥락이죠. 딱 한 가지는, 사람들로 진리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Eng. p. 3)

11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12 자 열왕기상 17장, 저는 처음 칠절을 읽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주목하십시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저가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13 주님께서 그의 말씀 봉독에 축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밤, 저는 거기서 본문을 취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때, 시기, 장소,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 애쓰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14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압니다.

1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이미 세 번 사용하셨고, 약속이 두 번 더 있습니다, 다섯 번입니다,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영을 사용하셨고, 그 영은 엘리사에게 두 배로 임했고,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고, 이방인 신부들을 안내해 들여오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고, 유대인들을 본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모세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세 번 사용하셨습니다.

16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왔고...(Eng. p. 4)

17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아주 드물게... 마치, 저는 그들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거나, 어느 혈통을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 겁내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글을 쓸 줄도 몰랐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세 사람이 글을 쓸 줄 알았지, 이 위대한 사람 엘리야는 결코 한 글자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글을 쓰지 않았는데, 어쩌면 글을 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고대 선지자들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왕국과 왕들과 사람들과 교회들과 기타 모든 것들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강인한 자들이었습니다.

18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강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옷차림이... 그는 털이 많고, 양가죽 옷을 입고, 낙타 가죽 띠를 허리에 두르고, 얼굴에 수염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가 얼마나 험악하게 보였을 지 상상이 갑니다.

19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모두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다 죽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 시대 때... 초대 교회의 니케아 회의를 일으킨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때 그들은 조직을 만들어 다른 모든 교회는 해체시키고 하나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을 때에, 풀을 먹으며 혼자 광야에 살던 엘리야같은 험악한 사람, 아주 역센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아래 있던 귀족들과 고관들과 등등은 그들의 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그들은 신랑 안에 있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했던 것처럼, 교회 신부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밀알은 천 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20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책에다, “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이 사자들에게 물려서 조각조각 찢겨지는 걸 서서 보고서도 하늘에 앉아 그 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침묵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쓴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서서 그의 외아들이 죽고 침벨음을 당하고 그런 등등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 이 사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악많은 세

대가 앞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악을 행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계속해서 악한 왕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십 이년 동안 통치했던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그중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현대주의 자였습니다. 그도 물론 종교를 믿었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현대적인 경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백명의 히브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학교에서 잘 훈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Eng. p. 5)

22 그러나 이 디셋 사람 엘리야는 광야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이 아합을 더이상 참을수 없을만큼 아합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로 나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듯이, 어쩌면 그의 얼굴엔 흰 수염이 빠죽이 나오고, 햇빛에 대머리가 반짝이고, 작고 가느다랗고 나이들은 두 눈에, 손엔 막대기를 하나 쥐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걸어나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23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죠, 주께서 가라사대를 가지고 무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24 그런데, 우리는 그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주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알았고, 자기가 그 시대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의 머리를 자르든, 그를 감옥에 던지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주께서 가라사대” 라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면전에서. 얼마나 강인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극심한 가뭄을 예고하기 전에...

2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벌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켜져 있을 때 주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 놓고, 그 일에 대해 벌금이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그 법은--법이 도전을 받으면, 거기에는 그 행위에 대한 벌이 있어야 합니다.

26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습니다. 오, 그들은 큰 교회가 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육받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걸쳐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 학교들이 있어, 기계처럼 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제사장들도 많고, 서기관도 많고, 종교도 많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께서 가라사대를 주어서 들여 보냈습니다.

27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잘 보살피시는지 보십시오. 그가 이 선지자를 메시지와 함께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이런 일들을 고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나서는 곧장 그를 떠나라. 내가 가뭄동안 네가 있을 곳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내가 엘리야 너를 돌보겠다, 내가 그저 내 말만 전하고, 내가 네게 말하는대로만 행한다면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8 그런데 저는 오늘 밤, 엘리야의 이 위대한 사역과 엘리야의 때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의 예표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완벽한 예표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라들을 생각하... 만약 제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시간이 있다면,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 시간을 충분히 할당하고 싶습니다. (Eng. p. 6)

29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미국을 취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들어와 인디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통치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원주민들을 몰아

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30 그런데 그들의 초대 왕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런 위대한 사람들. 우리 나라의 초대 대통령들도 역시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워싱턴, 링컨, 기타 등등. 그 다음엔 마침내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점점 더 썩어들어, 마침내는 이 아합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예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현대식이 되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31 여러분들은 그와같이 현대적인 사람들에게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미쳤군, 그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고,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32 그래서 그는 그저 평범한 신학 이상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메시지 이상가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에 금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 위에 그 심판을 내릴 주께서 가라사대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께서 가라사대였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날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자비의 선을 넘어가면 심판 밖에 남는게 없습니다.

33 이제, 거기서 제가 엘리야를 예표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와, 삼으려고 하는 그 예표가. 심판 바로 직전에, 그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는 상징적으로, 자연적으로 돌보심을 받음으로, 자연적인 양식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이제 삼년 육개월 간, 엘리야가 부르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말하는 그 때가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왕에게 걸어가서, “제가 말하기 전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꽤나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그

것은 굉장한 메시지이죠!

34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의 영적인 가뭄의 예표로 삼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압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는 극심한 영적 가뭄이 있음을 우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될 일이라는 걸 아시죠, “땅에 기근이 있으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그 때가 지금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이것은 자연적인 가뭄이 영적인 가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Eng. p. 7)

35 죄와 불신은, 거짓 교사들과 교회 내에 있는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곳을 이 다가오는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지자를 떠나 말씀의 현대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향했습니다.

36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를 일으키시는 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십니다.

37 그런데, 하지만 엘리야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로 가게 정해주신 은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줄을 세우기 전에 지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은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코 그를 위해 그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도 결코 그에게 그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그도 직접 그곳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먹일 곳, 양식이 매일 매일 제공되는 은밀한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은밀한 곳에 대한 예표입니다.

38 세계 교회 협의회(WCC)와 오늘날 진행 중인 모든 것들이 “기적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교회들에게서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더이상, 그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밖에 가진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임을 압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39 오늘 아침 다투어 한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로,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씀이 제시되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40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41 불신자를 벌하시고자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해 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시대에, 노아를 위해 피할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애굽을 익사시키려고 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도록 피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길입니다!

42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중 하나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빛나는 미사일의 탄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Eng. p. 8)

43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선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믿는 자녀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십니다, 다가오는 진노와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을.

44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에게 벌을 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라앉게 하고, 가버나움을 바다 한가운데 매장시키고, 그 세대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을 봅니다.

45 이 일들이, 그 시대의 현대적 경향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일어나, 아니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세력들과 맞서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정신이 아냐. 광야에서 온 늙은 광신자, 바보, 숲에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아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글썄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브는 사과를 먹은게 아닙니다, 이브는...” 그게 뭐였죠? 제가 믿기로는... “살구를 먹은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살구였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대로 홍해로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바다 한 쪽 끝에 갈대가 무성한 곳이었습시다, 그는 갈대 바다를 헤치고 건넜습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이,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을까요, 그때? 오,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하는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내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47 그들은 그와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천 달러를 드릴테니, 제게 기적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구요!”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자기 앞에서 수천 수만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하고 말합니다. 오, 아님

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48 엘리야는 한 때 도단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그를 사로잡기 위해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힘이 있는 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그 선견자 속에 놓여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말이예요, 아시다시피,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했습니다.

49 말하기를, “가서 그 사람을 잡으라! 그 자가 우리를 방해하는 자로다.” 그래서 전 아람 군대가 살며시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둘러쌌습니다.

50 그런데 그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그는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군대가 여기 우리 주위를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Eng. p. 9)

51 그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자 게하시는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데요,”했습니다.

52 그는, “여호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소서,”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고, 천사들과 병거들, 보이지 않는 군대가 산에 가득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53 엘리야는 그곳으로 곧장 걸어갔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걸어나가서, “엘리야를 찾고 있소?”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우린 엘리야를 찾는 중입니다.”했습니다.

54 말하길, “이리 오세요, 그가 있는 곳을 알려 드리죠.”하고는, 그들을 진중으로 이끌었고, 군대들이 걸어가 그들을 사로잡은 바로 그곳으로.

55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주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들 가운데 내려와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가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위대한 능력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엘리야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랬음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눈이 멀게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이란 건 없어요, 그렇게 어디 있어요, 모두 다 감정이라구요.”

56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엘리야가 들림받고 젊은 엘리사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젊은데 대머리가 되고, 자녀들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늙은 대머리야, 왜 당신도 엘리야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나?”고 말했을 때. 아시겠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역사가 일어난 뒤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불 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이 사람 뒤를 따라다니며, “늙은 대머리, 왜 당신은 올라가지 않았죠?”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자, 암콕이 마흔 두 명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57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해석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확증하시면 그것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리라”하셨고,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가 하리라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는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은 하나님을 조금도 막지 못합니다. (Eng. p. 10)

58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부딪치는 것 만큼이나 많은 불신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불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셨고, 하나님께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시나니, 내가 일들을 행하는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않으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라,”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알므로써, 그리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성경이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9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행해진 일들은, 그것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현재 그분이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그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60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현대적인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오,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기적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신을 이용할 뿐이에요.”

61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신학자들에 대적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세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62 구약의, 또는 어떤 때든지,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씀이 되기 까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하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가졌을 때, 그들은 너무도 몰두해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은...그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볼--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63 “내가 부르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 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고 완벽하고 완벽하게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 역시 아모스 3:7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하기를, “결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는 먼저...

64 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미치광이!”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을 그의 종 엘리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증받고 시험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오, 비가 많이 왔어요! 저수지엔 물이 가득하고, 강들은 넘치도록 흐르고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Eng. p. 11)

65 성경은, “삼 년 육개월 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시내와 물이 다 말랐습니다, 어느 곳이나.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라고 말씀하신 분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압니다. 그래서 그는...

66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진정한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메

시지와 그 사자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 말씀마다, 주께서 가라사대를 대표하라고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그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67 교파의 주관 하에 있는 교파에 속한 사람,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종파에 의해 만들어진, 신학 영향 아래 있는 신학자, 그 사람과 그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신학의 교회와 신학자도. 맞습니다.

68 그러면 한 사람이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과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가지고 왔을 때, 그와 그의 메시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말씀이셨습니다, 성 요한 복음 1 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의 사자는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9 예수님은 예언되어온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이를 낳으리라.” 저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하고, 그는 그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모든 예언들이 예언되었습니다. 다투는 울면서, 시대 시대를 걸쳐 내려오는 동안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표명된 그 말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70 이제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전 상당히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즉 신부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들이 보고, 복음이 능력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71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가지고 거기로 걸어나가,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72 저는 누누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크리스천 싸이언스교에 속하신 자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일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브래넌씨,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자랑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런 질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은,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했습니다. (Eng. p. 12)

73 말씀하시길, “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선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74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성경구절을 하나 보여주시죠.”하고 말했습니다.

75 그녀는,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시더라’하고 말하고 있는데요.”하고 말했습니다.

76 “네, 물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셨으므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셨으므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몇 조각의 비스킷과 다섯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는 배 뒷전에서 주무시던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왜죠? 그와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77 그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78 저는 제가 일곱 교회 시대를 전할 때, 그것이 너무도 충격적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저는--저는 예수님께서 그 ...를 그 하얀 것을 위에 쓰시고 서 계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그의 머리는 양털같이 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서른 셋 밖에 안된 사람이 눈처럼 흰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9 저는 훌륭한 신학자이신, 오순절교 신학자이신 제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잭 모어형제님입니다. 그분은 영리하시고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는 말하길, “브래넨형제님,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의 모습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저는--저는, “네, 모어형제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80 저는 거기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구사전을 뒤져 다니엘서를 찾았는데, “그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왔는데 그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 저는 뭐라고 전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전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일곱 인이 열리기 전 일입니다, 일 년인가 더 오래 전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81 그런데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흰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옛날 재판관들은 그가 최고의 권위자임을 나타내려고 흰 가발을 썼었습니다.

82 그래서 저는 흰 가발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즉 그는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동일한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최고의 권위자인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습니다. (Eng. p. 13)

83 그 후 일곱 인을 시작할 때 즈음, 그 일곱 천사들이 그 피라밋 형태로 내려왔을 때, 거기 서서 저더러 여기로 돌아가 그 일곱 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가 저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그것들, 잃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책의 뒤에 인봉되어 있고 그것은 성경 안에 적혀 있지 않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적혀진 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감춰졌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에서 한 마디를 제하거나 말씀에 한 마디라도 더하면...” 그래서 그것은 이 일곱 교회 시대에서 성경 안에 있어 왔던 비밀입니다. 그들 각각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더듬거려왔던 물세례와 이런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모든, 비밀을 산출해냈습니다.

84 그것이 올라갔을 때, 저 아래 캘리포니아와, 저 아래 멕시코에서, 투산위에, 모든 곳에 있는 큰 관측소에서 그것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계신 프레드 싸쓰만형제님과 저와 저기에 서 계신 진 노먼형제님은 그것이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 모두 다 말하기를,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그것들은 천사들의 날개처럼 보이죠, 그 날개들이 거기서 어떻게 접혔는지.”

85 어느날, 그것을 오른 쪽으로 돌려서 보니, 그것은 호프만이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완벽하리만큼 닮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흰 가발을 쓰고 거기에 서 있었고, 지구를 내려다보며, 그가 최고의 권위자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그 사실을 선언하고, 성경이 선언하고, 메시지가 선언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최고의 권위, 흰 가발을 쓴, 여러분은 아래에 있는 그의 검은 턱수염을 보셨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저 뒤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오른쪽으로, 옆으로 돌려서 보십시오. 그럼 보일 겁니다, 마치 그분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완벽한 모습이. 여러분은 그것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봐야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올바른 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저 위에서 찍은 사진처럼.

86 제가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호프만이 그린 ...의 머리 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썬데이의 성막 안에서,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제 집에는 그때 이후 그 그림을 항상 걸어두고 있습니다.

87 그 다음에, 여기 하늘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서 이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님은, 이 학교 사택이 있는 곳 옆에 서서, 그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삼십 삼년 후에, 그것은 사실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처럼 신비스런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Eng. p. 14)

88 바티칸에서처럼, 그들은 거기 위에 그리스도를 그려 놓았는데, 그의 턱 주위에 한 일센치되는, 동그란 수염을 입 윗부분에 다 그려놓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89 그것은 제가 언젠가 고대 성당에서 본 적이 있는 희랍 화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그렸는데 마치 짐승이나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은 가장 멋진 남자였고, 이브는 어느모로 보든지 완벽한 여자였으리라 생각합니다.

90 그런데 육적인 생각은 그것을 자신들의 견해들로 포장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서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아함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91 자, 우리는 엘리야가 그것을 말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은...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와 메시지는--메시지 곧 말씀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말씀, 메시지; 사자와 메시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나에 대해 쓰여진 일들을 행치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와 그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92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의 행함을 믿지 않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93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자들, 이것들은 감춰진 양식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춰두셔서 사람들이 뻔히 보기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람 군대를 눈멀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즉 믿는 자의 진실한 진짜 양식을 불신자에게 감추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4 그들이 노아를 뭐라 불렀죠, “광신자,” 방주를 짓고, 그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열린 눈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신주의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위대한” 것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하다!”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옳고 그름의 대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 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95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미리아심(계획)에 의하여, 그의 삶에 임한 부르심과 말씀에 따라서, 은밀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Eng. p. 15)

96 그런데 보십시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는 그의 생명을 위해 예비된 이 비밀스런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심판이 이 땅을 내리치기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이미 불림을 받았고, 신부는 이미 선택되어 심판이 내리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의 예표입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판의 시대에 직면해 있고 심판으로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97 보십시오! 뱅스형제님, 오늘밤 이곳에 계신 몇몇 형제님들은 그날 아침 저 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98 그런데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그 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커다란 계시를 얻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는 저는 오늘밤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언제나, 일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가라사대이기 때문입니다.

99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테이프로 들으신 수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제가 서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이러이러할 것입니다.”하고 말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문들과 잡지들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정확히 진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100 우리는 여기 강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삼십 삼년, 아니 1933년엔가 주의 천사가 내려왔고 그가 행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일어나오자 많은 분들이 거기 강둑에서 있다가, “빌리, 그게 무슨 뜻이죠?”하고 물었습니다.

101 저는, “그것은 저를 위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믿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니까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02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길, “자네 말은, 칠학년 교육을 받은 자네가 전 세계로 다니며 군주들과 유력자들과 왕들과 동등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 이 말인가? 오, 그 말을 잊어버리게!”하고 말했습니다.

103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삼십 삼년 후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가 하시리라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말을 지

킵니다. 그는...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104 이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미리아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이 내리칠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05 그날 그 산에 서 있을 때, 여기 서 계신 뱅스 우드형제님과, 우리는 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말을 또 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십 내지 십 오분 뒤에 세울 이 기도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뱅스형제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아픈 루비자매님을 두고 떠났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뒤에 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Eng. p. 16) 저는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등산하기에 좀 힘겨운 산이라 생각한 저는 조금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사막 속에서, 그같은 산 바로 위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천사들이 그 일 여러달 전에 나타났었던, 바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6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제가 몸을 돌려 산 꼭대기를 보았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길, “그 돌을 집어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은 다음 몇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하고 말해라”하셨습니다.

107 저는 그냥 그 돌을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뱅스형제님, 저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 돌을 공중으로 던졌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했습니다.

그는, “그 말은 루비에 대한 말인가요?”하고 물었습니다.

108 저는, “아뇨, 저는 그것은 당신들, 뱅스나 루비, 둘 중 어느 누구와도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9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거기 서 있을 때, 많은 형제님들과 저는 지금 이곳에 몇분이나 계신지 모릅니다, 그때 열 둘인가 열 넷, 열 다섯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제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브래넘형제님,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당신의 후원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110 저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목사님”하고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맥휴즈형제님. 그는, “저는... 저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했습니다.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111 그는, “그런데 말이죠, 제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하더니 말하길...로이 로버슨, 여기 계신 이사님과 우즈형제님, 테리와 빌리, 그리고, 오, 맥어넬리형제님,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서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그는, “뭘 좀 여쭙고 싶는데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환상들도 주십니까?”했습니다.

112 저는, “그렇습니다, 형제님,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려고, 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옆을 봤는데, 뚱뚱한 의사가 그를 쳐다보고, “맥휴즈목사님, 당신 눈 안에 있는 이 알레르기는 머지않아서 당신 눈을 빼낼 것입니다. 저는 이년 동안이나 당신의 눈을 진료해 왔는데,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내게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당신의 의사가 며칠 전 당신에게, ‘이 알레르기가 당신 눈에 있었습니다’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오쯤, 열 한 시 가량 되었었는데, 그는 썬글래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안경을 끼고 있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눈 때문이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 눈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했죠.”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울기 시작했고,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Eng. p. 17)

113 저는 다시 주변을 걸으려고 몸을 돌렸는데, 제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거기 서서 저를 쳐다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눈이 무척 밝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께서 가라사대이니, 당신은 그 눈을 잃지 않을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그와 함께 사냥을 갔었습니다, 그는 저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114 그리고 저는 어떤 노부인이 스타킹을 내리고 치마 한 쪽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아들아, 브래넘형제님을 만나거든, 내 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려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작은... 발 주위에 흑처럼 보이는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115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머리가 반백이신 분이신데 ‘내 아들아’ 하시겠죠.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나를 만나거든, 내가 그녀의 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달라고 말했죠. 그녀는 발 주위가 온통 흑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했습니다. 그는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더러 걱정말라고 하십시오. 나를 겁니다.”했습니다.

116 저는 주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켜라, 빨리.”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로이 로버슨이 서 계셨는데, 그가 전쟁에 참가했던 노장임을 아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로이형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숨으세요”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했습니다.

저는, “비키세요! 숨으세요!”했습니다.

117 그리고 저는 좀 걷기 시작했고, 삽을 내려놓고, 몸을 돌리

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내려오사 산 한 쪽을 아주 부수고 폭음이 났고, 그곳을 그토록 흔드시고, 나무들 꼭대기를 자르셨고, 제 머리 위 한 구십 센치 내지는 일 미터 이십 내지 오십 센치되는 곳에서 칼때기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폭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 번.

118 그 후 그것이 세 번 후에 떠났을 때, 뱅스형제가 와서는, “그게 당신이 말씀하셨던 건가요?”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했습니다.

말하길, “그게 뭐였죠?”

119 저는, “하나님께서서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십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신지 물랐습니다.

120 그후 저는 가만 있다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에게 말해주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서해안을 치는 심판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곳을 보십시오! 그후 몇 시간 후에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알래스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비가 저버림을 당해왔습니다. (Eng. p. 18)

121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춰진 양식,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입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선하심과 자비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나와서 들어가는, 그들 조직들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진실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나와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122 그때 그는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 시내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23 그리고 가뭄이 거의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부르시고 한 과부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불신자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짐승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 과부의 생명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작은 떡 한 개가 있었는데, 그녀가 붙들고 있던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것을 먼저 내게 주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통이 비지 아니하고 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124 보십시오, 통에는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루를 가지러 갈 때마다, 통에는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러 갈 때마다, 병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왜죠? 가루는 가루로 드리는 제물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알갱이는 모두 같아지기 위해서 똑바로 놓아져야 했습니다. 가루의 모든 알갱이는 다 똑같은 것으로,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를 따르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125 친구들이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먹는 생명의 떡은 가뭄 때가 지속되는 동안 그들의 목숨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릅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어땠겠습니까? 그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는 그가 여기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신부는 남편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는 그가 하였던 일들을 우리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26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온다면, 말씀이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행한 것처럼, 말씀은 그가 행했던 동일한 것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게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런 것들을 먹고 살 것입니다. 오!

다시, 그것은 메시지와 사자를 하나로 묶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준비되었고, 그것은 이미 때에 적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각자 원하신다면, 이 시대의 모든 불신으로부터 기꺼이 멀리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셨다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Eng. p. 19)

그런데 그의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4장과 누가복음 17:30, 그리고 성 요한 복음 14:12과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요엘 2:38과 그가 하시리라 하신 모든 것, 야니 2:28입니다. 그가 말세에 하실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빛이 있으리라 말했고,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겠고, 그것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모든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그 은밀한 장소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맞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거기에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127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나중엔, 내려왔을 때... 그가 받은 그가루제물 후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리을 때와 기타등등, 그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증명하고, 그 선지자의 영.

128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한 천사가 그와 똑같은 가루로 구운 떡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그를 재웠다가, 다시 깨워 그를 위해 거기에 구운 가루떡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십 일 간을 그 떡의 힘으로 기운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그를, 때에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129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로 와... 그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130 그런데 오늘날 그는 자기 때를 만난 이방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 합당치 않습니다.

131 사람들은, “어째서 메시지가 크고도 큰 장소들에, 종파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커다란 전도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합니다.

132 그것은 그들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칭 교회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부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철을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배가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먹기엔 너무 기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여러분들은--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그것은 떡이고, 생명이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3 우리는 지금 기도줄을 시작하지 않으면 늦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리를 숙입니다.

134 사랑하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영적 양식.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날밤, 저 아래 사마리아에서 그날, 엘리사가 걸어가, “어,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하고 말했던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길, “주여, 왜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Eng. p. 20)

135 진실로, 주님,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시대에 표명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내게 먼저 보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것을 내가 행하노라.”

136 그런데, 아버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신자는, 신자들의 몸은 교파들은 알지도 못하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 양식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아들의 신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137 우리는 의사들이 실패할 때에 우리 몸의 병고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날에 그의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양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녀가 되게 도와 주소서,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138 저는 빌리가 제게 기도카드를 나누어 줬다고 말했다고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도카드에 쓰여진 글자를 알려 주신다면, 그거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씨이”라고 말한다--주] 씨이(C), 좋습니다, 씨이(C)로 시작해서, 우리 줄을 세웁시다. 아시겠죠, 이제, 그들은 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만약 누구나...보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불려서 줄을 세우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게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라리 강단 위에 올라오시고 싶다면, 아니면 불려서 줄을 세우거나, 아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오로지 성령만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그가 옹호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139 조지 라이트형제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여러 해 전에 당신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 나무에 앉아 있는 쪽독새의 소리를 들었던 때부터, 저는 그 똑같은 메시지를 여태껏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140 좋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도줄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습니다, 기도카드 씨이, 일, 이, 삼, 사, 오 번 먼저 와서 여기에 서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손만 드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시러 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브래넘형제에게 얘기한다--주.] 뭐였죠? 네. 아-아. 기도카

드 씨이, 일, 이, 삼, 사, 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기도카드가 없으신 분들...

141 이제,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런 타입의 기도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막을 세울 때 제가 받은 소명을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하기를, “복음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제가 복음 전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복음 전도인의 일을 하라,” 아시겠죠, “변화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그는...

142 여러분은 두세 가지의 사역을 섞지 못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순회 전도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선지자이고 어찌면 담임 목사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일,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ng. p. 21)

143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제 메시지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말씀하시기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지 않았다면! 모든 교회 종파가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리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모세를 대적한 암브레와 안네처럼 위대한 공적을 행하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리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모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브레가... 아시죠.

144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1933년 이후로 그 성막의 모퉁이들 안에 적어 넣어놓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모방입니다, 그야말로. 말하길, “가만봐라, 암브레와 안네의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리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5 저는 우리가 모퉁이들을 놓을 때 교회를 보았는데, 사람들은 창틀에 매달려, 쪽 돌아가며, 성막의 벽 주위로 서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세워질 때, 여기 이 도시 사람들은 말하길, “여섯 달 이내에...” 우리는 성막을 짓기 위해 일 달

러 십 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의 정비소가 되리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양을 위한 양 우리입니다.

146 일, 이, 삼, 오, 육, 칠, 팔, 구, 십. 씨이, 육, 칠, 팔, 구, 십. 좋습니다.

147 이제, “나 여호와와 그것을 심었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밤낮 물을 주리라.” 비난을 보십시오! 어떤 종파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교회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오순절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물 세례를 반대하고, 모두 이런 모든 다른 것들을 반대합니다. 제 가족에게조차도, 저의 아빠는 저를 문 밖으로 쫓아냈고, 저는 죄그만 종이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뉴얼버니에 가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험과 수고와 울무를 헤치고
나 이제 왔으니
날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끈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저는 신 여섯인데 곧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리.

거기서 나 천년 만년 살 때에
해처럼 밝게 빛나리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리.

오,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제게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분이십니다!(Eng. p. 22)

148 오, 좋습니다, 몇 분이냐 제가...제가 어디까지 부르고, 십요? 조금 더 부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게 뭐였죠, 십, 십오? 좋습니다. 씨이, 십에서 십 오까지, 어디에 계시든지간에, 일어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뭐라고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씨이, 십 오에서 이십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씨이, 십 오에

서 이십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면 열 사람이 늘은거죠. 보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기도줄이 세워져 있는지 보시죠, 우리는 너무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149 이제 세계 주의를 집중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오래끝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위대한 시간입니까! 저는--저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각의 잠재성을 깨달을 정도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세계 주목해 주십시오.

150 뭐--우리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을 안 후에 산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 누가 하나님인지 시험해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다."했습니다.

151 그런데 이교도들은 몸을 상하게하고, 오, 말하기를, "어, 물론, 아무..." 그 이교도들은 불이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152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으므로 불이 내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환상을 받았다고요?"하고 말씀하시겠죠.

153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질서있게 두고, 그는,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명한대로 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지켜지면, 그 나머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는 그저 여러분에게 거기에 그것을 갖다 놓으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기에 갖다 놓으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시겠죠? 만약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일을 돌보실 것입니다.

154 그런데, 여기에 이 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될 사람들이 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벽에까지, 좋습니다, 시작할 줄에. 그런데, 먼저, 적어도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어딘가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아프신데 기도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지 손들어 보십시오. 보십시오, 거의 모든 곳에 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만일 우리 주님이... 그리고 저는 그가 만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가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줄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줄로 서서 그에게 왔고, 무리들이, 그는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때로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러보고, 한 여인에게 왜 그를 만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혈루병이 나았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5 그녀가 돌아서서, “어,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이 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하고 말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Eng. p. 23)

156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한 이 말 때문에, 네 딸이, 마귀가 딸에게서 나갔노라,”하고 말씀하셨다면, “어, 저, 주님, 저는--저는 주님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랐는데요,”하고 말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마귀는 여전히 그 소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말씀한대로 딸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57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이 산더러 ‘이동되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말한 것이 이를 줄 믿는다면,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믿으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158 그런데 사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저 문에 걸어와 들여다 보거나 거기에 서서, “어, 또 다른 광신자 무리이군”하고 말하며 떠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감춰진 양식임을 모릅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는 감춰진 비밀스런 것임을 모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별거벗고 곤고하고 눈먼 마

음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159 오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도 절대로 그와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느니보다는 (정말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160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을 약속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돔에서 그리하셨듯이 내려와 직접 인간의 욕을 입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소돔같은 상태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그 날에 인자가 나타내지리라.”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이 사람은, “엘로힘(Elohim)”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기를, 이 약속된 아들이 이르기 전에, 그게 뭐였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세 사람이 그에게 왔는데, 옷에 먼지가 쌓이고, 여행을 하고 내려와 사람처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소돔과 같은 상태에 이를 때쯤에, 인자가 다시 자기를 나타내리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나타내리라.

161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선지자가 한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시겠죠? 그들을 다시 성경으로 되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 날에 자기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회 시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날에 알려져야 합니다. 일곱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과 일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겼고, 무슨 ... 어떻게, 무슨 일들이 생겼었는지에 대한 비밀들.

162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 먼 바리새인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Eng. p. 24)

163 그것의 비밀은, 그 인들은, 그 교회들 각각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비밀스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리박사님,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비밀들 중 한 가지 비밀입니다. 그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아시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을 이끄는데, 신조나 종파에 로가 아니라 다시금 진실한 말씀에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무리에게 올 것이고 인자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164 오, 세상에! 오,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저는--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크신 분으로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이 오르지 못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깊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다 돌지 못할만큼 넓으신 분이고,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165 이제 모두, 진짜로 조용히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일 ... 라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는 이 때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는 전에 이 곳에 계셨을 때 행했던 똑같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는 뒤를 돌아다 볼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장소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저를 고칠 수 있을까요?”하고 말씀하십니다.

166 그분의 말씀은 그가 이미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

요한 것은, 그가 여기에 계심을 직접 알리시는 일입니다.

167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시면, 호프만의 서른 세 살의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손에서 피가 흘러 나오고, 기타등등, 그분 몸에 못자국 상처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 들입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이습니다. 그가 오실 때는, 직접, “모든 눈이 그를 보고, 모든 혀가 그를 고백하리라, 그리고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같이, 그 일도 그러하리라.”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이단과 교파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168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몸과 제 몸에 자신을 구현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제게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들을 통해 자신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은밀한 양식입니다. 그가 저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신다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위해서는, 역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런데 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명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전심으로, 여러분 그 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그가 뭐라 하실 지 보려고 기다리는 것이 말입니다. (Eng. p. 25)

169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하고, 건강한 분처럼 보이는데, 그는 어찌면, 저는--저는--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계십니다. 자, 저는 그 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믿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서 제게, 말하기를, “저는--저는--저는 아무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저는 발바닥 한 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통이 있습니다. 저는 위궤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병이. 그는--그는, 전 모릅니다. 그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0 저는, “좋습니다, 선생님, 형제님. 제가 안수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통해 내려오며 행해온 일입니다. 그

게 맞습니까?

171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강림 시에는 마치 소돔의 시대와 같이 다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그 사람은, 사라가 있는 장막을 등 뒤로 두고 말하기를, (“아브람”이 아니라, 지금은) “아브라함아”했습니다.

172 보십시오, 그는 전날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네 이름을 바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3 그런데 여기에 주님 자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사래가 아니라 사라라 하셨습니다.

그는, “장막 안에, 당신 뒤에 있나이다.”했습니다.

174 말씀하시길, “내가 이십 오년 전에 한 약속대로, 너를 권고 하리라.”

175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방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76 그런데 그는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인자가” 곧 말씀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에, 마지막 날에 와서 자기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음을 믿으십니까?

177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 밖에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인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면서, “주님, 저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압니다,”라고. 그가 당신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178 그것은 제 뒤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열이 올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애입니다. 당신은 다른 도시에서 오셨군요. 그 아이는 위장병이 있습니다. 그랬죠. 믿기만 하십시오.

179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저는 저 분을 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Eng. p. 26)

180 여기에 계신 이 남자분, 매우 건강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사람 위에 덮여 있는 그늘을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기에 그리 오래 있지 못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은 당신의 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여기에 계십니다.

그는 마음 속에 어린 아이, 어린 사내아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아이에게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형제님이 “전 그러실 수 있음을 압니다”하고 말한다--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일종의 간질증세를 나타내는 미미한 혼수 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생긴 일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일으켜 살릴 수 있고, 그가 나으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181 찰리 콕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어디 있죠? 찰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밤 그가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군요, 찰리. 개리, 너 어디 있니? 래리, 그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도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래리야, 너 어디 있니? 잠시 이리 오너라. 어, 너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는 이 소년도 똑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주 좋은 제 친구입니다. 여러해 전 제가 저 아래에 있었을 때, 이 어린 소년은 발작을 일으켰는데, 완전 혼수 상태가 되어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질이었죠. 저는 그 어린 아이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를 낫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애의 아버지이고, 그 애 어머니는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 아이가 있습니다.

182 이제, 선생님, 믿으십니까? (고맙다, 래리.) 선생님,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똑같은 것을 허락하시고, 당신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살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기도합니다.

183 사랑하는 하나님, 그를 도와주소서. 저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그분 위에 임하여 그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84 이제 기쁘게 루지애나로 돌아가시고, 아들을 낫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85 오, 네, 그는 루지애나에서 왔습니다, 확실합니다, 레이크 찰즈 근방에서. 맞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당신의 생각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6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구하고 있군요, 당신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아이들이, 두세 명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이를 또 갖고 싶어 합니다. 자매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오십시오, 저는 그냥 안수하고 싶습니다.

187 사랑하는 하나님, 이 여자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것은 합당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가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188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회중

이, “아멘”한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는,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Eng. p. 27)

189 저는 어딘가에서 당신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딘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당신과 악수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어딘가에, 오늘 어디서, 그런데 전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어디였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 얘기하려고 아니 기도하려고, 제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조지아에 있는데, 아픕니다.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픕니다, 당신의 사촌이죠. 당신은 당신이 그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돌봐 주시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요? 이리로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190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사, 그가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 맘으로 믿으십시오.

191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당신과 악수하려고 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늘인데, 무척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았음을 아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알아내곤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슴에, 왼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캐롤라이나로 돌아가 병을 낫게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192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계신 분의 이름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데, 이 자녀도 믿음을 만끽하고, 주님이 지금 그의 병고침을 위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이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93 지금은 정말로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경외심이 사람들 위에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들리는데, 제 귀에는, 뭔가가 지나가는 것처럼, [브래넨형제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분다--주.] “휴우.” “휴우우,”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아시겠죠. 그것은 자녀들의 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떡입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저는 제가 아는한 건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은 저를 위한 떡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떡입니다. 그것은 격려입니다. 아프시지 않았으신 분들에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줍니다.

194 이것은 그저 철 따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인자가 나타내어질 때.” 아시겠죠? “그리고, 보라, 여호와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복시키리라.” 아시겠죠? 아시겠죠?(Eng. p. 28)

195 “그리고나서 의인이 악인 위에, 재를 밟고 다니리라.” 그것들은 풀무불같이 타고, 아시겠죠, 이 지구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저 아래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화산이 이 땅위에 퍼지고, 하늘이 불탈 것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시여, 지금과 그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96 안녕하십니까? 자, 한가지, 당신은 부인병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병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군요. 당신은 신경과민으로, 그저 신경과민이 될 연령이 되어서. 온갖 합병증이 있군요. 그러나 당

신은 한 가지 소원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믿으십니까... 모든 일을 고백하셨습니까? 제가 안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면, 성령이 오시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자매님이 “네”한다--주] 그걸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197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 여자분에게 사도시대적 형식으로 안수하고 그녀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198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떡입니다.

199 제가 “여성병”이라고 말했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가지셨죠? 그것이 당신이 또한 가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나으리라고 믿으십니까? 가십시오, 그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200 안녕하세요. 당신은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오래전에 먹던 것처럼 먹을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하고 말하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이.

201 당신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나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저, 그냥 가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게 하실 것입니다.

202 당신은 당신이 나올 수 있고, 주님이 낮게 해 주실 것이고, 관절염을 더이상 가지지 않고 나아가서 건강해지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가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것을 제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하고 말하십시오.

저 밖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203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계신 저 여자분에게 안수하시고 그녀의 정맥확장병과 관절염이 사라졌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녀가...?...할 때.

204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나올 것을 믿으십시오. 집에 가서서...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십시오.

205 안녕하십니까? [그 자매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한다--주] 당신도 여성병이 당신에게서 떠나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오리라는 것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Eng. p. 29)

206 처음 뵈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연골을 당겼어요”한다--주] 아니, 세상에, 세상에! [“타튼”] 전 당신의 이름을 알아요. 저는--저는 ...하곤 했었죠. [“타튼”] 제가 침례 교회에서 목사로 있었을 때. [“타튼”] 타튼. [“텔러 타튼”] 텔러 타튼 자매님. 당신은 지금 척추병으로 고생하고 있군요. [“네.”] 괜찮아질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까? [“네”] 몇 해 전 저 아래 밀타운 침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오.

조지 화이트,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도 기억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당신은 믿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손만 없다면, 이 기름부음을 받고 있으면서, 당신은 당신이 나오리라고 믿습니까? 이리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낫게 하시기를.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저, 여러분 모두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207 이제, 저 부인을 만나 옛날 추억을 생각나게 하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누가 “타튼”이라고 말한다.] 타튼. 타튼, 맞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녀의 딸은 버디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확합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뭐랄까 조금, 아시다시피, 그것은 일종의... 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8 그러나 당신의 척추병은 사라졌습니다, 부인. 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209 당신도 당신의 심장병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환자가 “네”한다--주] 그냥 가시고, 기뻐하시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210 오십시오, 부인. 당신은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도 등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기뻐하며 가십시오. 그것, 당신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시는건 그분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시길.

211 애야, 안녕. [소년이 “안녕!”한다--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신경과민을 고쳐서 낫게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안녕, 친구, 악수 좀 하자.

21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린 소년에게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가 정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213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길. 당신도 믿으시죠? 그러면 나올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214 그렇게 어린게 심장병이 있다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환자가 “네, 믿습니다”한다--주]가서, “주님 절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Eng. p. 30)

215 하나님이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냥 가서, 기뻐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216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회중이 “아멘”한다--주]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인자를 믿으십니까?

217 몇 분 전에 여기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할 수 없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를 행했습니다. 아니, 어쨌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니면 제가 가능할 때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여러분...그게 또 있습니다. 당신은 손을 드셨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심장병을 고치시고 낮게 하시며, 저기 있는 당신의 딸을 낮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그것을 믿으십니까? 네프부인, 당신은 하나님이...리오 네프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의 어린 딸은 신장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나오리라는 걸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218 저기 세례탕에 계신 분, 위장병을 가지시고 서서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게 하십니다.

219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서로서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 현재 이 시간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손수건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220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손수건들을 축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의 몸을 낮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21 자, 서로서로 손을 얹고, 여러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동일한 성령이,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일부이고, 그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죽 나오리라.”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얹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는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더 지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내내 얘기해 왔던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222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며칠전 죽었던 얘기를, 믿음의 기도로써,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므로, 하지만 그들은 서로서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에 앉아 있습니다. (Eng. p. 31)


223 사탄아, 너는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이기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이 메시지를 입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계신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너라! 그들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리라.” 그래서 너는 내쫓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회중을 떠나거라!

224 지금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병고침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저의 병이 나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이제 제 병이 나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회중이, “이제 저의 병이 나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한다--주] 당신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는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저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225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두 손을 들고, 형제님이 예배를 끝내려고 나오실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 Vol. 1 No. 4

Spiritual Food In Due Season, Vol. 8 No. 7R

이 메시지는 원래 윌리엄 매리언 브래넘형제가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있는 브래넘 성막에서 1965년 7월 18일 일요일 저녁에 전한 영어 설교인데,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1994년 보이스 오브 갓 리코딩즈 사 (Voice of God Recordings)에서 발행하였습니다.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Copyright notice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be printed on a home printer for personal use or to be given out, free of charge, as a tool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book cannot be sold, reproduced on a large scale, posted on a websit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or used for soliciting fund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Voice Of God Recordings®.

For more information or for other available material, please contact: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www.branham.org